WINTER 2018 Vol. 85

# 또 하나의 나, 우리

PLAN INTERNATIONAL

지구촌 아이들의 꿈
플랜코리아

## ‘또 하나의 나, 우리’는
## 플랜코리아가 전하는
## 아이들의 소중한 꿈입니다.

플랜은 UN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 기구로 80년 역사를 가지고
국제적 신뢰를 인정받아온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종교 · 정치 · 국적을 초월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1억6천5백만 명의 어린이와 가족 및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보호, 교육, 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 생계지원, 긴급구호 등의 영역에서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플랜코리아는 플랜인터내셔널의 한국 지부입니다.

또 하나의 나, 우리 WINTER 2018 Vol. 8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H스퀘어 S동 912호 **이메일.** kno@plankorea.or.kr **홈페이지.** www.plankorea.or.kr
**통권.** 제85호 **발행일.** 2018. 12. 14 **발행인.** 이상주 **발행처.** 재단법인 플랜 한국위원회 **디자인.** 그래픽오션 02.3422.5612
**편집.** 서울커뮤니케이션 070.7633.2009

CONTENTS

04
**Plan Report**
소녀들, 세상을 움직이다
‘세계 여자아이의 날’

08
**아주 특별한 만남**
지구촌 소녀들의 꿈,
B.I.G 콘서트

10
**우리는 플랜 가족**
후원자님 덕에
지구촌 아이들은
오늘도 꿈을 꿉니다

14
**사랑은 계속됩니다**
차가운 편의점 음식 대신,
사랑의 김치와 함께 따뜻한 밥상을

16
**플랜 긴급구호**
인도네시아 대지진,
아이들의 고통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18
**지구촌을 간다**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열정 불태운
‘정비기술 재능기부’

20
**Plan Board**
마음에 행복을 선물하는
꾸러미 이벤트

22
**지금 만나러 갑니다**
나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만났습니다

24
**꿈꾸는 에세이**
제 이름은 신입니다

26
**고마워요 플랜**
건강하고 든든하게
한층 더 아름다워진
시카 사람들 이야기

28
**꿈꾸는 아동편지**

30
**플랜톡**

32
**Plan Board**

33
**플랜툰**

34
**후원자 공간**

35
**Enjoy Plan**

36
**플랜 소식**

# 소녀들,
# 세상을 움직이다
# '세계 여자아이의 날'

성 평등 시대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자아이들을 위한 세상은 멀리 있습니다.
전 세계 국회의원 중 겨우 1% 미만이
30세 이하의 여성입니다.

여전히 지구촌은 남성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때문에 10월 11일, '세계 여자아이의 날'은
더욱 특별합니다.

이 날을 기념해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수천 명의 소녀들이 각계 각층의 리더가 되어
평등과 자유를 외쳤습니다.

플랜의 새 캠페인 'Girls Get Equal'의 일환인
#GirlsTakeover를 통해 소녀들은 한 국가의 대통령부터
구글, 페이스북, 비아콤, 로레알 같은
국제적인 대기업의 대표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아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 여자아이의 날을 맞이해
플랜 네덜란드 마조레인이 상원의원 역할을 하고 있다.

# 여기, 세상을 움직인 소녀들을 만나보세요.

## 벨기에

'세계 여자아이의 날' 전날인 10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플랜과 각국의 청년 활동가들이 '글로벌 걸즈 써밋(Global Girls' Summit)'을 주최했습니다. 전 세계의 예술, 비즈니스, 정치, 창업, 과학과 미디어 분야의 혁신가들을 초대해 여아들과 젊은 여성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유명 가수 필로마 페이스(Paloma Faith)도 함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 중국

중국 소수민족인 먀오족 소녀 청잉(15세)과 주앙족 소녀 리핑(14세)이 베이징에서 'UN 우먼 차이나'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플랜이 UN 우먼 차이나와 함께 지원하는 소수민족 소녀들입니다. 플랜 차이나는 두 소녀에게 임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제공했고, UN 우먼 차이나 역시 소녀들과 학교에서의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을 의논했습니다.

##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국회 입구에 파란 암사자 상을 설치했습니다. 암사자는 여성들 또한 무한한 기회를 가져야 함을 뜻하며, 정계에서 남녀 격차를 좁히는 것의 중요성을 환기시킵니다. 국회 안에서는 세 명의 청년 활동가들이 국회의원들과 만나 미래의 변화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페루

페루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밀리라는 소녀가 '세계 여자아이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평범한 소녀에서 대통령이 되어 보는 소중한 경험을 한 에밀리는 "페루의 여아들, 특히 저와 같이 지방에 사는 여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게 됐어요"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 파나마

파나마에서는 세 명의 현지 소녀들이 정부의 주요 직무를 맡았습니다. 블랑카, 디오셀린다, 야키에라는 각각 정부부처 장관, 부장관, 그리고 이민성 장관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카를로스 루비오 장관은 이들에게 업무를 맡기며 "여성들은 의사결정권을 가질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여성의 평등권을 포기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필리핀

필리핀에서는 멜라니(18세)와 셸라(17세)가 마스바테 지역의 부주지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이 지역 자치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방안을 지도자들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또, 플랜 필리핀은 '필리핀 걸즈 써밋(Philippines Girls Summit)'을 열어 150여명의 청년들과 함께 여성들의 기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베트남

베트남에는 전국에 1300만 명의 소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대변하는 100명의 소녀들이 하노이의 국회 사무소에서 열린 '내셔널 걸즈 테이크오버 포럼(National Girls Takeover Forum)'을 진행했습니다. 소녀들은 총리, 정부 지도자들과 함께 공공장소 범죄와 조혼, 그리고 그 참혹한 결과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고 여아 권리 신장을 실현할 전략적 계획과 업무 분담 또한 이뤄졌습니다.

## 캄보디아

캄보디아에서는 플랜이 '세계 여자아이의 날'을 맞아 북쪽 지역에서 온 11명의 소녀들과 함께하는 거리 행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소녀들 및 부모님, 학교 대표, 마을과 지역 공무원, 지역 정부 관계자들을 포함해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벤트에 참여해 성 평등의 중요성에 대해 알렸습니다.

##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페랄타 지역의 소녀들이 지역 국가 아동, 청소년 위원회의 여러 역할들을 맡았습니다. 또 세계 여자아이의 날을 기념해 플랜은 도미니카 공화국 어린이 도서관에서 '걸즈 포럼(Girls Forum)'을 주최했습니다. 여성 옹호가 이즈미르, 엘시, 미셸, 사라가 국가의 다양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대변인으로서 활동했으며, 세 학교의 여러 소녀들이 초청됐습니다.

---

**세상의 중심으로 한 발자국 나간 소녀들의 이야기 어떤가요?**
**이날의 한 발자국은 '세계 여자아이의 날' 단 하루 동안만 벌어질 수 있는 마법이 아닙니다. 플랜과 함께 지구촌의 모든 소녀들이 보다 당연한 권리를 누리며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여갈 소녀들을 위해 플랜과 함께해주세요!**

# 지구촌 소녀들의 꿈, B.I.G (Because I am a Girl) 콘서트

**낭만적인 가을 정원, 청명한 하늘 가득 소녀들의 꿈을 응원하는 음악이 울려 퍼졌다.**
**10월 11일 '세계 여자아이의 날(International Day of Girl Child)'을 기념해 에버랜드 장미원에서**
**지구촌 소녀들의 꿈을 응원하는 B.I.G(Because I am a Girl) 콘서트가 열렸다.**

UN이 공식적으로 선포한 '세계 여자 아이의 날'은 플랜의 글로벌 캠페인 'Because I am a Girl'을 통해 얻은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세계 여자아이의 날'답게 각 분야에서 사랑받는 여성들이 무대에 섰다.

먼저 버스킹 콘서트의 포문을 연 김성령 홍보대사가 지구촌 여자 아이들이 처한 현실을 전달하며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개도국 여자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맑은 가을 하늘과 어우러진 버스킹 공연에선 인기 여성 가수들인 옥상달빛과 선우정아가 소녀들을 위한 노래를 불러 관객들의 감정을 뭉클하게 했다.

이들은 노래 중간중간 아직도 고통 받는 개도국의 소녀들이 많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그들을 위한 의미 있는 나눔에 함께 해 줄 것을 부탁했다. 버스킹 공연 실황은 플랜코리아 공식 페이스북 라이브 채널에도 공개돼, 온라인 관객들에게도 실제 무대의 감동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버스킹 공연과 더불어 실제 나눔을 체험할 수 있는 '플랜 아트 마켓'과 플랜 나눔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아기자기하고 편안하게 꾸며진 현장에서는 일러스트, 핸드메이드, 고객 참여형 작품 등 30여명 아티스트들이 선보인 작품이 판매 및 전시됐다. 또 플랜코리아의 전미선, 김성령 홍보대사가 자신의 애장품을 직접 들고 플리마켓에 동참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플랜 나눔 체험 부스에서는 플랜 여아권리신장 캠페인인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에 대해 소개했으며, 지구촌 소녀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도 열렸다. 현장 후원 참여자에게는 선물도 증정했으며, 개도국 소녀들에게 보내는 희망메시지를 적어서 거는 훈훈한 모습도 미소를 자아냈다.

# 후원자님 덕에 지구촌 아이들은 오늘도 꿈을 꿉니다

상을 받은 후원자들이 이날 선보인 갖가지 소감들을 중심으로 훈훈한 현장을 소개합니다.

## 2018 플랜코리아 후원자 어워드

플랜코리아의 존재 이유인 후원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밤의 주인공으로 빛났습니다. '2018 플랜코리아 후원자 어워드' 행사가 코엑스 메가박스 부띠끄관에서 김지민 홍보대사의 유쾌한 사회, 전미선 홍보대사의 시상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플랜의 각종 이색 수치 정리 및 후원 아동의 감사 인사, 전미선 홍보대사가 기여한 태국 영유아교육센터 완공 현장 영상 등이 상영되며 후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즐거운 영화 감상도 함께했습니다. 플랜코리아와 함께한 후원자 및 기업, 홍보대사들 중 분야별 우수자를 선발하는 후원자 어워드는 총 9개 부문이 있습니다.

### "엄마가 되고 나서 다른 아이도 생각하고 싶어졌어요."

**후아유상 양정녀 후원자**

양정녀 후원자는 1999년부터 오랫동안 플랜코리아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후원 아동 두 명이 자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임신하고 다른 아이들의 삶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우리 아이는 자랐지만 플랜을 통해 계속 아이들을 키울 생각이에요"라는 훈훈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 "어머니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편지를 많이 못 썼을 거예요."

**The좋은교류상 장유진 후원자**

장유진 후원자는 2015년부터 총 35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업무가 바빠서 주로 어머니가 편지를 써 주셨다"며 어머니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대필' 아니냐는 김지민 홍보대사의 농담에 장유진 후원자는 "결국 어머니들끼리 편지를 주고받는 셈"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 "주변 사람들과 같이 오면 더 많이 동참하지 않을까 해서 많이 데려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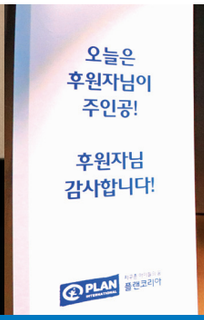
**The좋은후원상 고광선 후원자**

고광선 후원자는 2005년부터 8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날 가족은 물론 주변 지인들도 여러 명 함께한 그는 "같이 와서 행사를 보면 더 많이 동참하지 않을까 해서 데려왔다"며 끝없는 후원 욕심을 부리는 한편, "상을 받을 일이 아닌데…"라며 쑥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 "김중만 홍보대사 덕분에 시작한 후원, 아이에게도 좋은 바탕이 됐어요."

**The좋은가족상 이주미 유병규 유지민 후원자**

가족 3인이 모두 후원자로 활동 중인 이주미 후원자는 이날 대표로 혼자 참석해 "김중만 사진작가를 좋아했는데, 그분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플랜을 알게 됐어요. 아이의 이름으로 꾸준히 후원하니 아이도 뿌듯해하고 지역사회 봉사에 열심인 아이로 자랐어요"라며 흐뭇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내가 평생 해 온 일 중
가장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The좋은스토리상 안창수 후원자

안창수 후원자는 외항선 선장으로 일하던 시절 방문했던 기니에 1억 원을 기부해 학교를 개보수하고 현장을 직접 찾기도 해 화제를 모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같이 가느라 고생한 플랜 직원이 상을 받아야 했다"며 "이 일은 평생 해 온 일 중 가장 당연한 일이었다"고 겸허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내일을 향한 희망을…"

The좋은기업상 현대제철 고선정 차장

현대제철은 필리핀, 미얀마, 인도 등에 직업훈련학교, 식수지원 등의 현지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해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든든한 나눔 정신에 다른 후원자들 모두 박수를 보냈습니다.

"나에게 플랜이란,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배움입니다."

The좋은동행상 전미선 홍보대사

전미선 홍보대사는 2012년부터 캄보디아와 베트남 영유아지원시설 건립, 출연한 공연 객석 나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플랜이 있어 멀리 있는 아이들에 대한 후원이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먼 곳의 일을 알게 해주는 배움이 바로 플랜"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남길 씨의 선한 영향력에
우리도 동행하고픈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특별상 TrueEyes김남길

배우 김남길 팬클럽인 'TrueEyes김남길'은 2011년 아동 3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2명을 후원 중입니다. 이날 참석한 팬클럽 일원들은 "김남길 씨의 인도네시아 쓰나미 봉사 현장을 보고 일회성 조공이 아닌 지속적인 후원으로 그의 선한 영향력에 함께하고 싶어졌습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등학생이 이런 멋진 곳에서
상을 받다니 배재고 내 최고의
동아리 아닌가요?"

자원봉사상 배재고 플랜번역봉사반 김준엽 부단장

배재고 플랜번역봉사반은 2010년부터 꾸준히 번역봉사활동 및 교내 바자회를 통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김하림 지도교사와 함께 참석한 학생들은 "이 상 덕에 동아리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 감사하고 행복하다"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변함없이 여러 아이들에게
다양한 빛깔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후원자 여러분 덕분에
플랜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아이들이 건강해
지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그날까지 후원자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한 해
동안 플랜코리아의 후원자가
되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겨울 보내세요!

# 차가운 편의점 음식 대신, 사랑의 김치와 함께 따뜻한 밥상을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언제 올 지 모르는 어른들을 기다리며 어린 나이에
혼자 먹을 식사를 준비하는 아이들, 편의점에 진열된 차가운 음식으로
저녁을 때우는 아이들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플랜코리아와 일성건설은
이런 아이들의 밥상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
역시 그런 노력 중 하나입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푸른꿈 자람터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봉사활동을 진행해 온 일성건설에서는 강영길 대표와 임직원 30명이 김장 봉사활동에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플랜코리아와 일성건설 임직원들이 정성스레 담근 김치 170포기는 올해 '푸른꿈 자람터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했던 지역아동센터 3곳에 전달돼, 아이들의 따뜻한 밥상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플랜코리아의 급식지원사업은 편의점의 차가운 음식이 아닌 영양과 균형을 고려한 '건강하고 따뜻한 밥상',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먹는 밥상이 아닌 친구들과 함께 먹는 '행복한 밥상', 센터 내 조리사가 만들어 주는 '안전한 밥상'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아이들이 혼자서 부실한 식사를 하지 않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두 힘을 모았습니다. 친구들과 둘러앉은 건강하고 따뜻한 밥상 위에서 정성스레 담근 김치는 빠질 수 없는 필수 반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김장 봉사활동 날, 1년 동안 해 온 일성건설의
아동복지센터 주거개선사업이 유종의 미로 다가왔습니다.
각 센터의 아이들에게 진심이 닿길 소망하며 김장봉사활동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장차 나라에 이바지할 아이들이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인도네시아 대지진, 아이들의 고통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지난 9월 28일, 규모 7.7의 대형 지진과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를 덮쳤습니다.
2,000명이 넘게 사망했고, 7만여 채의 집이 파괴됐습니다.
피해를 본 주민 수는 240만 명에 달하며, 그 중 50만 명 정도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지진과 해일 이후 9살 사트리아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과 학교 건물이 모두 사라졌고, 많은 친구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일이 지나간 후, 학교가 무너져 버렸어요.
언제 다시 학교에 갈 수 있는지는 몰라요."
– 사트리아(9세)

10살 셀시는 가장 친한 친구인 울란을 눈 앞에서 잃었습니다.
셀시는 해일이 일어난다며 손을 잡아 끌어준 삼촌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지만, 친구 울란의 손은 놓쳤습니다.

"건물이 무너져서… 제 옆에서 기도하던
친구 울란의 손을 놓쳤어요."
– 셀시(10세)

집, 학교, 가족, 친구들을 잃은 아이들에게 플랜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후원을 통해 모인 1,185개의 대피소 키트와 1,163개의 위생 키트를 각 대피소와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또 가장 놀라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해 대피소 내에 9곳의 아동친화공간을 설립했습니다. 52명의 교사와 14명의 NGO 직원들이 게임과 상담을 통해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아주 조금씩이지만 아이들의 미소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플랜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소식을 전하며 모금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부모님과 떨어져 지진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주세요.

**긴급구호 후원하기**
플랜코리아 홈페이지 (www.plankorea.or.kr)
▶ 후원하기 ▶ 사업후원 ▶ 긴급구호 ▶ 긴급재해지원

사망
**2,081명**

부상
**4,438명**

이재민 발생
**206,494명**

가옥 파손
**68,451곳**

경제적 손실
**15조2천900억 루피아**
(약 1조1천500억 원)

집을 잃고 대피소에
머무는 아동 수
**약 37만5,000명**

(2018.10.31 기준)

**플랜의 활동**

- 8개 지역 1,185가구에 임시 대피소 지원
- 19개 지역 1,163개의 위생키트 전달
- 1,500개의 워터 필터 전달
- 6개의 임시 대피소에 7개의 아동친화공간 조성
- 371명의 아동에게 정서 안정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향후 1만 가구에게 임시 대피소, 아동보호, 교육, 위생시설 등 지원 예정

#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열정 불태운 ‘정비기술 재능기부’

**현대자동차 서비스팀의 국내 우수 정비사들이 베트남으로 떠나 정비 기술을 전수했다.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현대 코이카 드림센터(자동차정비기술학교)
대상 재능기부 봉사활동은 현대자동차 서비스사업부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선발된 우수 엔지니어와 서비스 사업부 임직원 총 12명이 베트남 하노이 공업대학 자동차 정비학교 교수 20명을 대상으로 정비 기초 이론 및 신기술 교육뿐 아니라 맞춤형 정비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정비기술 해외재능기부’를 앞두고, 처음에는 이 사회공헌활동을 성공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외에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그 책임감 속에 참여자들과 수 차례 미팅을 진행하며 베트남 현지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내용을 준비했다. 그런 가운데 진짜 열정 넘치는 강사가 되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일과 후 틈틈이 교육자료 및 교육관련 장비와 공구 리스트를 준비하며 뿌듯해 하는 재능기부 동료들은 나에게 그 자체로 귀감이 됐다. 인천공항에 모여 간단한 진행방향을 공유하고 베트남으로 떠나는 비행기로 몸을 싣고 나서도, 동료들은 5시간 가량의 긴 비행시간 동안 계속해서 강의자료를 검토했다. 이번 재능기부에 대한 열정과 프로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베트남 현지에 있는 현대 코이카 드림센터에 도착해 교육생들을 만났다. 잠시 동안 감돌던 어색한 분위기는 교육이 시작되자 싹 사라졌다. 교육생들은 강의에 집중해 교육 내용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강사와 교육생들 간의 친밀감은 더욱 높아졌다.

교육이 진행되는 3일 동안 준비해 온 내용을 전부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에, 강사들은 쉬는 시간도 반납하고 가르치는 데 집중했다. 현장에 함께한 베트남어 통역 학생들 또한 내용 전달에 최선을 다해준 일등공신이었다. 무더운 날씨 속 다소 부족한 교육환경이었지만 강사, 통역자, 수강생 모두의 열정이 주변 환경을 무색하게 할 만큼 뜨겁게 타올랐다.

교육일정 동안 수강생들과 베트남 현지의 식사를 함께 나누며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 또 현지인들의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현대자동차뿐 아니라 나 자신도
지속적으로 국내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다짐 속에 재능기부를 마쳤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지만,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열정이 넘쳤던 그 현장의 열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져 뿌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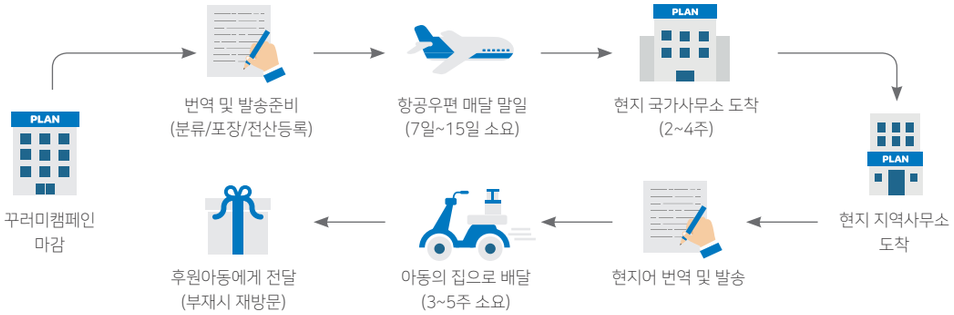
글. 현대자동차 서비스지원팀 손국현대리

마음에 행복을 선물하는 꾸러미 이벤트

# 추운 겨울, 후원아동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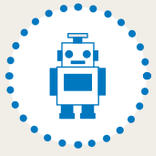
평소 마음과 다르게 바빠서, 쑥스러워서 표현하지 못한
후원아동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꾸러미 이벤트로 표현해보세요.
추운 겨울, 따뜻한 꾸러미 하나가 아동들에게 건강한 꿈을 선사합니다.

## 꾸러미/편지 전달 과정



**① 위생 꾸러미**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꾸러미**
칫솔+치약 / 밴드 / 종이비누 / 손수건 / 손거울 / 캐릭터파우치 / 미니빗자루쓰레받기세트

**② 요조숙녀 꾸러미**
**예뻐지고 싶은 소녀들을 위한 꾸러미**
리본파우치 / 머리끈(2종) / 헤어핀 / 손거울 + 자물쇠다이어리(청소년) /요술공주 캐릭터 스티커 장난감(영유아)



**③ 장난감 꾸러미**
**노는 게 제일 좋은 아이들을 위한 꾸러미**
레고 시계(남아용: 스파이더맨, 여아용: 겨울왕국) / 레고세트 2개 / 색칠공부책 / 색연필 / 종이접기책(색종이포함)

**④ 학용품 꾸러미(영유아용)**
**마음껏 쓰고 그릴 수 있게 해 주는 꾸러미**
종합장 2권 / 학용품 세트(연필, 지우개, 연필깎이 등등) / 모양지우개 / 색연필 / 크레용 / 편지지, 편지봉투 세트

**⑤ 학용품 꾸러미(청소년용)**
**노트 필기를 더욱 멋지게 해 주는 꾸러미**
노트 2권 / 샤프 세트(샤프 2개, 샤프심, 지우개 등등) / 지우개 세트 / 볼펜 세트 / 형광펜 세트 / 편지지, 편지봉투 세트

**꾸러미 실물은 더좋은가게 사이트 www.planshop.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2019년 1월 27일까지
**참여방법** 온라인 또는 전화구매

**Q 후원아동이 꾸러미를 받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개발도상국의 경우 우편과 도로 사정이 열악하여 국가사무소에서 지역사무소로 배송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지역사무소에서 아동의 집으로 배달되는 과정에서도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열악한 현지 시스템 상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Q 선물을 보냈는데 아이의 답장이 없어요.**

플랜은 기본적으로 후원아동이 후원자님께 답장을 쓰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이 편지 쓰는 일 자체를 어려워하거나 쑥스러워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정책에 따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지 직원 방문시 아동이 부재중인 경우 감사 편지를 작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꾸러미를 통해 후원아동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구매 및 문의 | 더좋은가게** www.planshop.co.kr 02-516-5107

**Q 꾸러미와 함께 아동에게 편지도 보내고 싶어요.**

플랜코리아는 꾸러미 이벤트를 진행하며 아동에게 함께 보낼 수 있는 작은 연말연시 메시지 카드를 동봉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편지 쓰기가 어려우셨던 후원자 분들께서는 꾸러미 이벤트를 통해 카드 쓰기에도 참여하셔서 따뜻한 사랑을 전해 주세요.

**Q 꾸러미를 보낼 수 없는 나라도 있나요?**

현재 발송 제외 국가로는 파키스탄과 수단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UN제재국 등의 사유로 발송이 불가하니 후원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나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만났습니다

**서아프리카의 나라 기니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생소한 곳이다.
하지만 이곳의 바다는 내가 최근 20년 이상의 세월 동안 1만 번 이상 항해한 추억의 장소다.
아무리 추억이 있다지만 70세의 전직 선장이 굳이 그 먼 곳에 다시 가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나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 이곳에서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직접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40여 년 동안 외항선 선장과 도선사로 세계 곳곳을 누볐다. 하지만 재작년 도선사를 퇴직한 뒤 개인적으로 했던 기니 입국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워낙 경제가 어려운 폐쇄 국가인 데다 우리 정부도 위험과 전염병 때문에 입국 자제를 권했다. 하지만 내가 오랫동안 저축한 1억 원을 소외지역인 기니 시호우루 마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플랜에 기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오래 전 나는 "퇴직하면 007가방에 100달러짜리를 가득 넣어 다시 한번 오겠다. 이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과연 이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26년 만에 왔으니, 꿈은 이루어지는 법이다.

부산에서 인천공항,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를 거쳐 기니의 수도 코나크리까지 총 19시간 30분이 걸렸다. 내가 낸 후원금은 코나크리에서 157㎞ 정도 떨어진 서부 킨디아 주 포레카리아 현, 시호우루 마을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쓰였다. 이곳에 세워진 학교의 완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코나크리에서 또 4시간 넘게 비포장 도로를 달려야 했지만, 나는 지루하지 않았다.

드디어 시호우루 초등학교에 도착했다. 주민과 학생들이 두 줄로 서서 뛰고 춤추며 "안창수, 안창수"를 외치고 있었다. 나는 혼이 빠진 사람처럼 멍한 상태가 됐다. 그 옛날 시골 잔칫집 같은 현장의 완공식에서 마을 사람들은 내게 학교의 첫 테이프를 끊으라고 가위를 주며 'Abu Kande Sylla'라는 현지식 이름을 붙여줬다. '천국인'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학교의 모습을 꼼꼼히 둘러보고, 방송 취재에도 응했다. 내 선물인 가방과 교복, 학용품에는 '안창수'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새 학교의 화장실, 교실, 책상에도 모두 내 이름이 영어로 적혔다. 방송 취재진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시골 밀림 지대와 인연을 맺은 이유를 물었는데, 내가 "특별한 이유도 없고 하고 싶은 일을 한 것뿐"이라고 답하자 실망한 듯이 보였다.

20여 년 동안 꾸준한 저축으로 모은 거액을 선뜻 낯선 나라 기니에 건넨 것에 대해 이상하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나눔이란 돌고 돌아 결국엔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이다. 나의 기부는 어쩌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우리의 마음의 빚을 갚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 나이는 어느덧 70세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때, 오랜 기간 동안 생각해왔던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 여한이 없다는 생각도 든다.
언젠가 한 번 다시 가 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 때문에 나에게
더욱 소중했던 이번 여정을 잊을 수 없을 듯하다.**

글. 안창수 후원자

66

# 제 이름은 신입니다.

99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신입니다.
베트남에 살고, 10년 정도 플랜의 후원을 받았어요.
저는 보통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양치질을 해요.
부모님은 쌀과 카사바를 재배하시고, 수확하면 농작물을 판매하십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태풍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오늘은 학교에서 태풍이 불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에요.
플랜은 재난에 대응하는 방법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재난 위험' 프로그램을 시행해 저희들을 도와줬답니다.

엄마가 활동하는 지역 사회 저축 대출 조합과, 식수 위생 및 건강에 대한 모임도
플랜에서 마련해 주었답니다. 오늘 엄마는 개인 위생 관리에 대해 배우신다고 하네요.

저는 크면 의사가 되어서 우리 마을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제가 플랜의 후원아동이라서 정말 기뻐요.
안녕히 계세요!

신의 하루
영상으로 만나기

# 건강하고 든든하게, 한층 더 아름다워진 시카 사람들 이야기

시카는 인도네시아 동부에 있는 아름다운 섬 마을입니다.
플랜은 1999년부터 시카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오며 사람들이 천혜의 환경뿐 아니라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약 3,600명의 어린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많은 영역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끌었습니다. 아름다운 섬 시카에서 플랜은 더욱 아름다운 변화들을 이루고 기쁜 마음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카 사업장**
사업 기간: 1999년~2018년
사업장: 21개주, 160개 마을
후원아동: 1,500명
수혜아동: 3,600명

## 아동보호 및 아동참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게 됐어요!**

"지역 어린이 모임을 통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요. 또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친구들과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죠."
– 예헤스키엘, 13세

**3,515명**의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하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5,000명**의 후원아동과 부모들이 아동권리의 중요성, 특히 여아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2,883명**의 아이들이 지역아동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2차례** 개최된 세계 여자아이의 날 행사에 남녀 학생들이 시카 지역과 청소년 의회를 대표해 참여했습니다.

## 재난 위험 감소

**지진 걱정 없는 안전한 교실에서
재난 대비 능력도 키워요!**

"이젠 지진이 발생했을 때 마냥 겁에 질려있지 않을 거예요. 우선 책상 아래로 피하고 건물을 빠져나가기 위해 지시를 기다리라고 플랜의 활동을 통해서 배웠어요."
– 판드리아누스, 11세

**571명**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튼튼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96명**의 지역 학생들이 재난재해 발생시 학교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833명**의 마을 주민들이 재난 대비 능력과 지식을 갖추고,재난재해로 인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영유아 발달 지원

**안전하고 평등한 삶에
한 발 더 가까워졌어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모여 나무와 노끈으로 그네를 만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놀두스, 52세, 부모이자 지역대표

**3,442명**의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76명**의 0-23개월 된 아이들에게 건강한 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4,068명**의 부모들이 자녀양육교육을 통해 0-6세 아이들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양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 물과 위생

**깨끗한 물을 쉽게 마실 수 있어
설사병에도 걸리지 않아요!**

"물을 얻기 위해 1km씩 걸어가지 않아도 돼요. 이제 집과 가까운 곳에서 깨끗한 물을 길어온답니다. 정말 고마워요, 플랜."
– 요하나, 15세

**1,145명**의 주민들이 31곳의 새 우물에서 깨끗한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1,051명**의 아이들이 설사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해졌습니다.

**4,135명**의 보건의료 및 식품 관리사들의 도움으로 설사병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카 마을은 이제 아이들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 주신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플랜!**

# 똑똑똑,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베트남에 사는 후원아동
지앙 시 사이가 쓴 편지를 소개합니다. 망고와 곰 인형을 좋아하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 지앙은 춤과 노래를 즐기고, 학교에서는 수학을
재미있게 배우는 멋진 어린이입니다. 베트남의 멋진 풍경과 축제를
표현한 편지를 통해 후원자님을 초청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 준
지앙의 글은 훈훈한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66
후원자님과 후원아동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편지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후원아동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모든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99

66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라이쩌우에 사는
11살 지앙 시 사이입니다.
99

## 지앙 시 사이의 편지

**보고 싶은 후원자님께,**
**후원자님께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앙 시 사이에요.**

후원자님의 편지를 받고 기뻤어요.
편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지금 5학년이고 학교에서 하는 수학 공부가 참 재미있어요.

수업이 끝나면 집안일을 도와드린답니다.
청소를 하고, 음식도 만들고, 설거지도 해요. 어린 동생도 돌봐주고요.

참, 우리 마을은 드넓은 논이 펼쳐져 있는 대단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일년 중 이맘때면 벼가 익기 시작해요.
플랜에서 따뜻한 겨울 코트를 나눠주어서 너무 좋아요.

축제날에는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답니다.
맛있는 케이크와 사탕도 먹었어요!

후원자님과 가족들께서는 안녕하신가요?
하시는 일은 요즘 어떠세요?
베트남에 저와 저희 가족을 보러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후원자님과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후원아동 지앙 시 사이 올림

## 후원자의 답장

**안녕! 지앙 시 사이**
**따뜻한 안부를 전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지앙 시 사이는 정말 착한 아이 같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드리고…
부모님께서도 많이 예뻐하실 것 같네.

베트남도 가을은 바쁜 계절이지?
추수할 때가 되었겠구나.
지앙 시 사이도 부모님을 도와드리려면
바쁘게 지낼 테지?

한국은 이번 여름이 너무나 더워서
아주 힘들게 보냈단다.
지금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 중 하나인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있어.

나는 회사 일이 바빠서 여유가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지난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지앙 시 사이도 건강하게 지내고,
가족들과 행복하기를 바랄게.

### 후원아동에게 편지 보내는 방법

· 이메일: letter@plankorea.or.kr
· 우편: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231 H스퀘어 S동 912호 플랜코리아 (우:13494)

* 한글 편지 20일, 영어 편지 25일까지 도착 시 당월 말일 발송합니다. * 편지 선정 시 후원자님께 연락을 드려 공개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 편지가 소개된 후원자님과 후원아동에게는 소정의 The좋은가게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궁금한 이야기

# 플랜톡

**플랜은 언제나 후원자님과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시는 모든 관심이**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아동들이 더욱 행복해지는 그 날을 위해**
**늘 후원자님과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원하게 답변해드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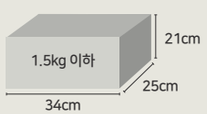
## Q1.

## 후원아동이 편지를 받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편지봉투 크기를 넘는 선물은 더하겠죠?

아동이 편지나 선물을 받으려면 보통 현지 국가사무소 도착까지 최대 한 달이 소요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요. 그 후에도 사무소에서 집까지 가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시간은 현지 사정(도로사정, 우편체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쉽게 도착하기 어려운 곳에 사는 후원아동이 많다 보니 후원자님께서 편지(선물)를 보내시고 아동의 답장을 받아보시기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린답니다. 긴 시간이긴 하지만, 아동 또한 같은 시간 동안 후원자님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 주저 말고 편지를 써 주세요.

부피가 크거나 지류, 필기류 이외의 물건을 선물로 보낼 경우, 소요시간은 편지와 비슷하지만 배송비는 후원자님 부담입니다. 이 때 드는 비용은 거리·중량·부피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총 운송료는 대략 8만원 선에서 중남미/아프리카의 경우 크게는 20만원 이상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운송료가 부담되시는 후원자님들을 위해 매 연말(10월~12월 중) 꾸러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꾸러미 이벤트 중 발생하는 운송료와 관세는 저희 플랜코리아가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겨울호 소식지 20 페이지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전화: 1544-3222(후원아동 문의 4번) 또는 EMAIL: letter@plankorea.or.kr)

또한, 2019년부터는 후원아동에게 보내는 선물 상자의 규격과 중량이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 상자규격(가로*세로*높이) : 34cm x 25cm x 21cm 이하
- 총 중량 : 1.5kg 이하(1kg 이상이면 후원자님 부담으로 발송)

*수단의 경우, 2019년부터 종이류의 선물만 가능

많은 양의 선물을 보내고 싶어하시는 후원자님들의 마음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지역 내 다른 아동에게 줄 수 있는 위화감 및 선물의 분실 위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위와 같은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후원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 드리며, 앞으로도 플랜코리아는 후원아동과 후원자님의 든든한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 Q2.

## 플랜코리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봉사할 수도 있나요?

플랜코리아 봉사활동은 크게 번역 봉사와 사무 봉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역 봉사는 아동과 관련된 문서들의 번역 업무입니다. 모집은 상반기(2월)/하반기(8월)로 나누어 연 2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 모집 시기 중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 봉사는 플랜코리아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행정 및 번역 업무를 해주시면 됩니다. 매주 월~금(공휴일 제외) / 9시~18시 중 활동이 가능합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과도 함께 봉사할 수 있습니다. 배재고등학교 영어 봉사 동아리는 동아리 소속 학생들과 오랜기간 동안 번역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 배재고의 플랜 영어 번역봉사반은 지난 2010년 설립돼, 수만 명의 어린이들이 후원자님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번역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번역봉사반은 후원 어린이 자료 번역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열리는 바자회를 통한 다양한 프로젝트 후원도 함께하며 다양한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사인 김하림 선생님은 "모여서 번역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라며 "바자회를 위한 후원물품과 먹거리 준비, 아동 인권과 난민에 관련된 독서토론, 수혜국을 잘 알기 위한 조사 발표 등이 동아리 활동 시간에 하는 일입니다. 막상 번역 업무는 학생들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해 옵니다"라고 활동을 설명했습니다.

번역봉사반 단장인 홍승완 학생은 "처음에는 아이의 정보가 담긴 영어 원문을 번역하고 제출하는 단순한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주거, 식수, 위생 시설 등의 객관적인 정보가 어느 새 저에게 감정적으로 다가오며 자연스럽게 이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원인 우현 학생은 "어린 아이의 건강 란에 온갖 질병 이름이 길게 쓰인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걸 직접 하다 보면 많은 것을 느낄 텐데'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라며 "나중에는 모두가 건강하게 잘 살아서 저희가 번역할 아동 정보가 더 이상 오지 않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라고 따뜻한 마음이 묻어나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답니다.

배재고 번역봉사반처럼, 개인뿐 아니라 학교 및 단체와 직장에서도 플랜코리아 번역 및 사무 봉사 동아리로 함께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신청**

**플랜코리아 홈페이지** ▶ **회원가입** ▶ **마이플랜** 페이지에서 가능하며,
1544-3222 / EMAIL : volunteer@plankorea.or.kr로도 가능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18년 한 해도 플랜코리아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주신 후원자님께 감사 드립니다.**

### 발급 전 확인 사항

개인정보 등록(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번호), 주소)

**등록 방법**

플랜코리아 홈페이지▶ 마이플랜

전화상담(1544-3222/내선: 311,313,314) / plan_a@plankorea.or.kr

**등록 기간**

2018년 12월 31일(월)까지

※ 등록기간 이후 변경된 정보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발급 방법 안내

**홈페이지 ▶ 마이플랜** : 2019년 1월 7일(월)부터 조회 및 출력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019년 1월 15일(화)부터 확인 가능

※ 2018년 납입된 후원금에 한하여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플랜코리아 홈페이지▶ 마이플랜 에서만 조회/출력 가능합니다.

### 기부금 유형 및 공제한도

**지정기부금** : 코드번호 40

**공제한도** : 개인 소득금액의 30% / 법인 소득금액의 10%

**세액공제율** : 2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2천만 원 초과 분은 기부금의 30% 적용

**관련 문의**

**전화**
1544-3222 (내선: 311,313,314)

**이메일**
plan_a@plankorea.or.kr

**카카오톡 친구검색**
플랜코리아



일러스트 재능기부 : 김미정

# Plan Toon

**- 4화 -**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주택거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아동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129만 명이 주거 빈곤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들은 성장기동안 자연재해와 범죄, 학대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자라납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이 아이들에게 플랜코리아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진짜 집을 선물해주세요.

# 세상에서 가장 쉬운 후원,
# 혹시 아직이신가요?

하나

## 소식지를 이메일로 받아 주세요.

종이로 인쇄돼 발송되던 소식지를 이메일로 받아 주세요. 소식지 제작비 및 발송 비용이 절감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5,500**명이 넘는 후원자님들이 참여

약 **800**만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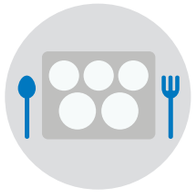
세네갈에 화장실 **4**칸 건축비

둘

## 개인정보를 올바르게 수정해 주세요.

1년간 후원자님들의 주소 불명, 개인정보 오류 등의 처리 비용을 아껴

**5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결식아동 **40**명 한 달 급식지원비

***2019년 봄호 소식부터는 모든 소식지가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참여 방법 >

**홈페이지 마이플랜 로그인**
> 회원정보 설정 > 1.기본 정보
> 소식 수신 > (우편물)해제

**플랜코리아 앱 로그인**
> 설정 > 회원정보 설정 > 1.기본 정보
> 소식 수신 > (우편물)해제





# Enjoy Plan

'또 하나의 나, 우리'를 읽는
또 하나의 재미

## 틀린그림찾기

1 **틀린 그림(5개)**을 눈에 띄게 표시한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찰칵!**

2 카카오톡에서 **'플랜코리아'를 친구 추가**한 후, 후원자 번호와 함께 **사진 전송!**

< 지난 호 정답 >

정답 및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2018 가을호 인조이플랜 당첨자 **이미애**(충남), **오진서**(제주), **강수진**(마산), **성지은**(김포), **정은아**(서울)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플랜코리아 소식

## KT그룹 희망나눔재단과 미얀마 학교 환경 개선 캠페인 런칭

플랜코리아가 KT그룹 희망나눔재단과 함께 '미얀마 학교 환경 개선 캠페인'을 론칭했다. 이 캠페인은 미얀마 양곤 지역 아동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의 CSV 플랫폼 '기브스쿼어'를 통해 진행된다. '기브스쿼어'는 KT그룹 임직원이나 일반인들이 봉사활동을 참여하여 모은 포인트를 도움이 필요한 해외 캠페인에 기부하는 시스템이다.

## 건설공제조합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진행

플랜코리아와 건설공제조합 임직원은 서울 중랑구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푸른꿈 자람터'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교육환경개선은 물론 급식, 위생환경을 개선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아동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인 '어울림이끌림'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 미얀마 재정착 난민 아동들에게 아동친화적인 공간을 선물한 바 있다.

## 플랜코리아 위기아동지원 캠페인에 레노버-은빛날개후원회 참여

플랜코리아 위기아동지원 캠페인의 주인공인 '예쁘게 웃는 아이 지은이'에게 레노버와 은빛날개후원회가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심각한 구순구개열인 지은이(생후 11개월)는 고액의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긴급 생계비 등이 필요한 위기아동이다. 글로벌 IT기업 레노버 글로벌 테크놀로지 코리아는 플랜코리아와 위기 아동 의료비지원사업 협약을 맺고 지은이의 구순구개열(언청이)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대한항공 전현직 조종사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은빛날개후원회는 지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 플랜코리아 홍보대사 김중만 사진작가X 여의도 IFC몰, 자선 사진전 성료

2003년부터 플랜코리아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김중만 사진작가가 수익금을 기부하는 자선 사진전인 'IFC몰X김중만 아트 슈퍼마켓'을 진행했다. 김중만 작가와 제자 13인의 작품 7,000점이 전시됐으며, 작품 가격은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으로 부담을 낮췄다. 플랜코리아와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김중만 작가와 이번에 새롭게 위촉되는 고려대학교 안암 병원 교수 조태형 박사의 홍보대사 위촉식도 진행됐다. 수익금은 플랜코리아를 통해 국내외 아동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어린이 유투버 간니닌니 플랜코리아 홍보대사 위촉

플랜코리아는 새로운 홍보대사로 인기 어린이 유투버이자 키즈 크리에이터 간니닌니를 위촉했다. 간니닌니는 간니(김가흔, 12세)와 닌니(김리흔, 8세) 자매 유튜버로, 57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다. 위촉식이 진행된 11월 20일은 '세계 어린이의 날'이어서 더욱 뜻 깊었다. 간니닌니는 앞으로 플랜과 관련된 내용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구호와 결연을 위한 모금을 하는 등 지구촌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온-오프라인에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현대건설,공동모금회와 미얀마 세이프스쿨 사업완료

플랜코리아와 현대건설이 '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미얀마 양곤 세이프스쿨 지원사업'의 완공식을 진행했다. 미얀마 양곤 세이프스쿨 지원사업은 미얀마 양곤시, 달라 타운십 지역 내 2개 학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도시 내 세이프스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달라는 미얀마에서 가장 큰 도시인 양곤에 포함되어 있으나 낙후된 환경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빈곤에 시달리는 지역이다. 이번 사업으로 학생 총 2,263명과 교사 60명 등 매년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직접 혜택을 받게 된다.

# 플랜지구촌 소식

## 플랜, 차드호 분지 소녀들의 위험 개선 노력 촉구

플랜 인터내셔널의 새로운 보고서에 의하면 아프리카 중서부 차드호 분지의 청소년기 소녀들은 무장단체 공격과 납치 위협, 강간과 성폭행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뿐 아니라 가사에 시달리느라 학교에 가지 못하고, 늘어나고 있는 조혼에 대한 강요로 14~15세에 대부분 결혼한다. 플랜은 국제사회 및 인도주의 활동가들에게 폭력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지원 및 강제 조혼,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부당한 사회적 규범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 우간다 캄팔라에서 'Safer Cities for Girls' 프로그램 진행

소녀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 'Safer Cities for Girls'가 우간다 캄팔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캄팔라와 다른 7개 도시에서 진행되며 청소년기 여아를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다. 2014년부터 소년들을 포함한 남성들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했으며, 추행 감소뿐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 플랜의 여성 경제 자립 프로젝트, 온두라스의 성 고정관념 타파

인구 절반이 빈곤선 이하의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는 온두라스에서 20세의 젊은 엄마 게이셀이 재정적 자립에 성공했다. 게이셀은 생계유지가 막막한 실업자 상태로 지내고 있었지만, 플랜의 '여성을 위한 사회-경제적 자립 프로젝트'에 참여한 뒤 좋아하는 분야인 자전거와 오토바이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 게이셀은 사업을 시작한 뒤 집을 짓고 가족들의 대학 등록까지 해줄 수 있게 되어, 이 지역에 뿌리박힌 성 고정관념을 극복한 사례가 됐다.

## 미얀마 라킨 주 아동-청소년에 평화달성 목적의 교육 지원

미얀마 서쪽 라킨 주는 불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 최고 수준인 지역이다. 대립 끝에 군 정부는 소수 로힝야 무슬림 집단을 학살했고, 남아 있는 로힝야인들은 신분증도 없이 미얀마 시민으로 대우받지도 못한다. 아이들 역시 무슬림 마을에서 일할 선생님을 찾기 힘들어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다. 플랜은 이곳에 아동센터를 마련해 읽고, 쓰고, 계산하는 법을 가르치는 한편 청소년들을 위한 리더 교육 또한 실시하고 있다.

## 에콰도르로 이주한 베네수엘라 이민자 지원

2015년 이후 베네수엘라의 정치, 경제 불안정으로 거의 200만 명의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를 떠났다. UN은 이를 근래 남미에서 가장 큰 인구 이동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에콰도르에 도착한 많은 베네수엘라인들에게 거처나 음식을 위한 재정적인 수단이 없다. 때문에 플랜은 베네수엘라 시민 연합과 협력해 음식, 위생, 대피 키트를 제공하며 시급한 수요를 충족시켰고, 특히 난민 임시 거처에 사는 아동들을 위하여 아동 친화 공간을 만들고 있다.

## 플랜 인터내셔널-텔레노어 그룹, 글로벌 파트너십 합의

플랜 인터내셔널과 텔레노어 그룹은 디지털화될 미래를 살아갈 아동과 젊은이들의 능력 배양을 위해 협력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 파트너십은 아동들과 젊은이들, 특히 여아들을 위한 남녀평등에 집중한 재정적인 지원과 디지털, 모바일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을 포함한다. 모든 공동 프로젝트들은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 세계의 아동들과 젊은이들의 디지털화될 미래에 대비한 능력을 배양하는데 집중될 계획이다.

## 제 안의 긍정적인 힘이 자라는 걸 느껴요.

네팔 동부 모랑 지역에 사는 19살의 사비나는
10년 가까이 플랜 인터내셔널의 아동지원 및
글로벌 프로그램 '18+'(조혼 철폐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조혼을 비롯한 이 지역에서 없어져야 할 관습을 타파하기
위해 마련된 많은 프로젝트를 접한 사비나는
이제 적극적인 활동가입니다.

"플랜의 활동에서는 아이들,
특히 어린 여자아이들도 자유롭게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토론합니다.

우리도 일어설 수 있어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후원**으로 어린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원신청서**

이름 (한글) (영문) ☐남 ☐여
연락처 e-mail
주소

**해외아동결연후원 (월 3만원)**
저는 명의 아동을 후원하고자 합니다.
**희망지역**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성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아동 ☐남자어린이 ☐여자어린이
**서신교류언어** ☐한국어 ☐영어
**특별정기후원 (월 만원)**
**지원분야** ☐해외사업 ☐국내사업

**후원금결제방법**
☐ **은행계좌 자동이체** ☐ **신용카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따로 연락을 드려 세부 내용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19호)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상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회원등록, 소식제공,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14세 미만 아동일 경우**(아동 개인정보 수집 보호자 동의) ☐ **동의함**

관계 법정대리인 (서명)

**후원신청서 작성 후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ID 플랜코리아로 보내주세요.**
**후원문의** 1544-3222 kno@plankorea.or.kr www.plankorea.or.kr



# The좋은가게

Hot Item 겨울엔 후드 & 허전한 손목엔 나눔팔찌

따뜻한 플랜 로고 후드 티셔츠에 나눔팔찌를 매치하세요~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세련된 네이비 후드로 애슬레저룩 완성!

***2018년 11월~2019년 2월까지 후드티셔츠를 구매하신 모든 분께 나눔팔찌를 증정합니다.(사이즈/색상 랜덤)**

재질: 면 100% | 색상: 네이비 | 세탁방법: 찬물 단독손세탁 | 판매가: 40,000원

< 지금 더좋은가게에서 만나보세요 >

## 후원아동을 위한 선물, 고민 마세요

편지와 함께 넣어 보낼 수 있는 선물이 마땅치 않으셨나요?
문구점에서 못 찾았다면, 지금 더좋은가게에서 만나보세요.

플랜 파우치(블루, 핫핑크 2종)

3D퍼즐

2단 케이크 생일카드

더좋은가게는 단체, 학교, 기업과 함께 협력상품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The좋은가게 www.planshop.co.kr 02.516.5107

지구촌 아이들의 꿈
플랜코리아

plan.kr plankorea 플랜코리아 plankorea plankoreaMedia 플랜코리아 후원문의 1544-3222